

100번을 꿰어서라도 막고 싶다...

8 이명익 기자 | ⓒ 승인 2011.10.21 17:14

21일 오전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촉구 농어민 대표 100배



▲ "400만 농민이 단결하여 지금과 같은 한미 FTA를 저지시키겠다는 결의의 마음을 담아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" 한미 FTA 반대 100배 서원문 중 첫번째 서원문.이명익기자



▲ 한미FTA저지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어민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'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촉구 농어민 대표 100배'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를 염원하는 절을 올리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한미FTA저지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'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촉구 농어민 대표 100배'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굳은 표정으로 회견을 지켜보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한미FTA저지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어민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'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촉구 농어민 대표 100배'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를 염원하는 점을 올리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한미FTA저지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어민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'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촉구 농어민 대표 100배'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를 염원하는 절을 올리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한미FTA저지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어민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'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촉구 농어민 대표 100배'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를 염원하는 절을 올리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"350만 농민들의 단결투쟁으로 농업을 천대하고 한미FTA국회비준을 압박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기운하며 마지막 백 번째 절을 올립니다." 한미 FTA 반대 100배 서원문 중 100번째 서원문.이명익기자



이명익 기자 lmi1230@nate.com